



성지순례를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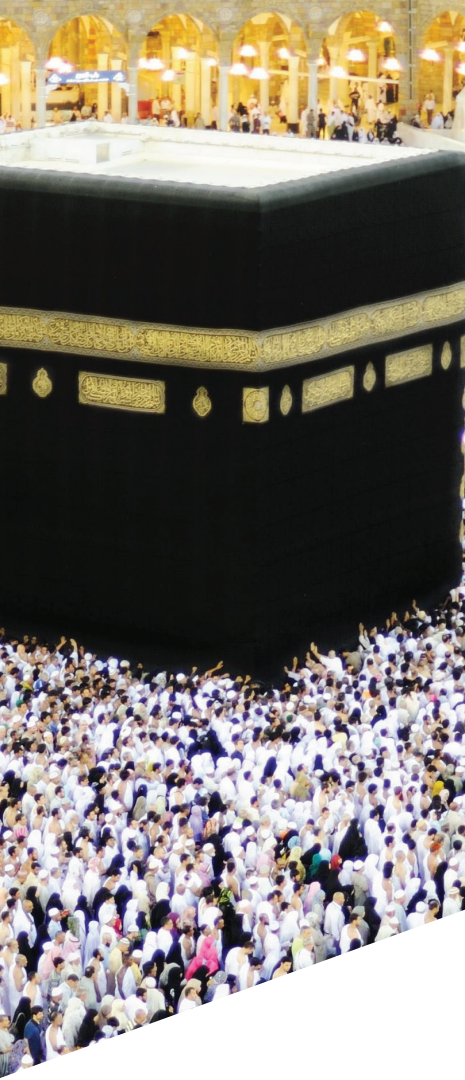
# 개종 무슬림이 주는 교훈

쉐이크 압둘라 하킴 퀘은 성지순례(하즈)를 수행하면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 머리말

압둘라 하킴 퀵 박사는 역사가, 사회운동가, 종교 지도자로서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에 이슬람으로 입교했고 1973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번 성지순례를 실시했지만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실시했던 1977년 가족 성지순례는 그에게 특별합니다. 그가 실시한 순례는 몇십년 전이지만, 성지순례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혜를 제공하며, 우리의 성지순례는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가 했던 그 당시 성지순례와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책은 퀵 박사가 주는 순례 관련 팁을 전하면서 그가 메카에서 체험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어려움 환영하기

성지순례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입니다 - 그동안 누려왔던 즐거움과 사치가 다 사라진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흑인계 미국인이자 모호크 족인 퀵 박사는 삶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순례는 국제 이슬람 기구에서 주관하였기에 별 다섯개 호텔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퀵 박사는 다시 순례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소박함'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말입니다.



1977년 그는 메디나 이슬람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의 가족과 함께 아랍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는 많지 않았고 사람들은 인도 위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였습니다. 그와 가족은 배낭을 매고 필수품들만 챙긴 채 도보로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였고 그들은 역사가 오래된 길을 따라, 두발로 걸어서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다수의 무슬림들이 메카 및 다른 순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분실물 같은 것은 없었고 골치아픈 여권 문제도 없었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성지순례였습니다.



#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

성지순례객들에 있어 드라마틱한 순간은 그들이 카으바(메카의 성원 중앙에 위치한 정육면체 건물)를 최초로 볼 때입니다. 쿵 박사에 따르면 그것은 매우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위에 인간이 만든 높은 빌딩이 없었기에 카으바는 돌산으로 둘러싸인 풍경 가운데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건축한 하나님의 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기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곧 순례 의식을 시작하게 됩니다...너무나 감동적이었기에 그는 그만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순례 시즌에 카으바를 방문할 경우에 그는 건축물을 만질 수 없었지만, 비성수기에 방문할 경우에 그와 가족들은 카으바의 벽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린 아들을 들어올려 아들이 흑석에 키스를 하게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주석 : 예언자의 전통 중의 하나는 흑석은 만지거나 키스하는 것이며, '예맨 기둥'은 손으로 쓰다듬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예언자의 전통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하는 것이며, 미신과는 무관합니다)

# 용서의 여정

그 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방문했지만 순례는 비교적 안전했고, 무엇보다 기적인 것은 순례객들이 모두 선량하고 배려심 있는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행동과 예의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단순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 인간은 악보다 선이 더 많습니다.

아라파 날은 순례 의식의 정수로서 그 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날입니다. 그 날 아라파 평원(메카 외곽 지역)에 서서 퀵 박사와 그의 가족은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무슬림 공동체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는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들의 과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탁트인 평원에 서서 기도를 하였고, 이에 그는 심판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날에 있을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 진정성과 집중

성지순례를 포함한 모든 경배 행위를 할 때 성공의 열쇠는 마음 속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퀵 박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 특정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진정성입니다.

순례는 순례객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순례를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현세의 것들은 뒤로 둔 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이 이를 발전에만 집중합니다. 일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일과에 임하면서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분의 궁극적 도착지에 대해 집중하세요, 천국에 대해 말입니다.



# 대지를 따라 걷는 여행길

성지순례는 전세계 무슬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길에서 여행을 하고,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아브라함은 대부분의 생애를 여행에 할애했습니다. 여행하고 지혜를 얻고 여러 방문에서 박식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